

틈을 주지 말아야 할 이유

사사기 1:27-2:5, 에베소서 4:25-27

최정웅 목사님

“오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허락하신 주의 성전에, 정한 시간에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희 속에 주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게 성령충만을 주사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자에 유럽에, 시리아 난민 수십만 명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었다. 난민들을 태운 배가 지중해에서 침몰해서 수백 명이 죽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받아준 것 같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크로아티아에서는 기독교인만 받아준다고 했다고 한다. 왜 그런가? 저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이다. 지극이야 가난하고 약한 모습으로 들어오지만, 생명 걸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존력이 엄청나다. 그러다 보면 유럽이 십여 년 지나면 무슬림화 되어버릴 수 있다. 대단한 위기다. 사무엘 헛팅턴은 마지막 때 전쟁은 문명 간의 충돌이 아니겠느냐고 이야기했었다. 영국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처음에는 그냥 살다가, 하나씩 이슬람의 종교적인 신념을 들먹이기 시작했다. 아내 네 사람을 데리고 살도록 법적으로 허락하면서, 그들에 대한 생활비를 다 보조받게 되었다. 매우 심각한 상태. 한국도 그렇다. 수백 명 무슬림들이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있다. 한국을 아시아 이슬람화의 기지로 삼겠다고 한다. 처음에는 노동자로 왔지만 지금은 아니다. 산업인, 의사, 법관 같은 고급인력으로 파고들고 있다. 유럽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저렇게 되어가고 있다. 복음이 확실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럽이 이슬람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를 축원한다.

지난 목요일은 비가 왔는데, 가을에 접어든 것 같다. 전국 산들이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아침저녁이 쌀쌀하다. 65세 이상 된 어른들은 지정 병원에 가면 무료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하니 다 맞으시기 바란다. 그 말은, 2015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다. 벌써 4분의 3이 지나갔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께 보람있게 드렸는지 생각해 보고, 2015년을 시작할 때 주신 언약을 점검해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바란다.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면서 이번에 캠프를 은혜 속에서 잘 마쳤다.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캠프를 했는데, 그 바로 다음이 사사기다. 사사기를 통해서, 후대를 위하여 언약 각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묵상하려고 한다. 사사기는 14명의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조금 살기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니까 재앙이 임하게 되고, 재앙이 와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회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해준다. 그렇게 또 잘 살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니까 또 재앙이 오고, 또 그제서야 회개하고, 또 사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14번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들을 보면 살 만큼 되었다. 1인당 4만 불 소득을 가지고 잘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재앙이 오고 회개하게 되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 흐름이 적나라하게 사사기에 드러나는데, 우리 자신과 후대가 이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서론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거의 점령했다. 출3:18의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의 응답을 받았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복음 체질 훈련을 충분히 받아서 통과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가나안 땅 정복의 응답을 받아서 요소요소 중요한 곳을 다 정복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알지 못해서 놓친 것이 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한다. 첫 번째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1.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이 있다.

(1)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몰아내

라고 명령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라고까지 했다. 왜 그렇게 쫓아내고 죽이라고 하셨는가?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간과했다.

(2)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 불신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신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있다. 지구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적 세계가 있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창조된 존재가 있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도록 지음 받은 이 존재가 교만에 빠졌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해서 흑암, 혼돈, 공허를 일으켰다. 이것을 성경만이 말하고 있다. 이 존재를 성경은 마귀라고 말한다. 이간자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 사탄이다. 반역자라는 뜻이다. 이 존재가 끼어들면 전부 이간시킨다. 최근에 어느 단체에 가 보니까, 멸절하게 생긴 사람이 여기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을 하면서 완전히 이간을 시키더라. 자기는 잘 하고 남들은 다 못한다고 하면서. 이게 사탄이 하는 것이다. 정치 속에도, 경제 속에도, 산업 속에도 있다.

(3) 이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당연히 실패해서 무너졌다. 그래서 계 12:1-9에 보면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데 단번에 무너뜨린 것이다. 얼마나 역올한 일인가? 이렇게 되어서 요8:44의 말씀대로, 인간을 자기 종과 자식으로 삼아 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운동하는 우리를 보고 ‘왜 잘못되었느냐, 인간을 마귀의 자녀라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마귀 자녀일 수 있느냐, 다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단이다. 예수님이 말했지 않나. “너희가 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마귀 자녀다.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다 모르고 있다. 요8:44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다.

(4) 교권에 매인 사람들이 절대로 모르고 있는 사실이, 지금도 사단과 그 줄개 들인 악령, 다른 말로 성경에 귀신이라 되어 있는 이 존재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요16:11, 14:30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했다. 고후4:4에 보면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다. 이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로 완전히 인간을 실패시키고 있다. 물론 조심해야 할 것은, 모든 책임이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단은 원인 제공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원수를 선택한 것이 잘못이었다. 그래서 인간에게 완전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그러나 원인 제공자는 분명히 원수다. 그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인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땅에 유령인도 많고 존경받을 자도 많으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5) 주의할 것은, 이 존재가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우상을 문화화해서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다. 보기 좋게 만들어서 섬기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속임수를 쓰는 것이다. 일본 아이들이 만든 장난감이 거의 귀신놀이다. 귀신하고 친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모든 문화가 그렇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들이 이 세상 문화를 거의 점령하고 지배하는데, 전부 이것이 귀신 놀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하고, 언약 위에 견고히 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넘어갈지 모른다. 우리 기독교만이 우상이라 하여 안 만들었다. 우리도 개혁자들의 주장을 따라서 십자가도 안 붙인다. 그럼도 잘 안 붙인다. 천주교가 보라. 무슨 그림만 있으면 거기 가서 빌고 있다. 보이는 것을 만들어놓으니까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다. 공황에 가 보면 기도실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다 무슬림들 기도하는 곳이다. 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유럽이 얼마 안 가서 무너지게 생겼다. 수십만 명 이슬람 선교사들이 가는 것 아닌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고 확실한 언약이 각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면 다 먹혀 버린다. 완전 속임수를 쓰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멋있는 문화를 만들어놓고 하나님을 떠나라도록 만든다. 후대들이 다 넘어가고 있다. 복음 뿌리, 언약의 뿌리가 없으니까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문화에 중독되어서 빠져 버린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귀신을 섬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들어가면 우상을 다 없애고 멸해라, 이방 족속을 쫓아내고 죽여라 한 것이다. 그 땅이 얼마나 범죄했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 것이다. 사단이 무서운 존재인데,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 가졌으면 이제는 싸워야 한다. 연탄가스처럼, 물 새는 것처럼 사단은 틈

만 나면 들어온다.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린다. 청소년들은 연탄가스가 된지를 모르는데, (웃음) 연탄가스 때문에 많이들 죽었다. 우리도 죽을 뻔 했었다. 이게 들어와도 모른다. 그래서 었4:27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가정에는 지금 무엇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있는지 보셔야 한다. 이것을 직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다 죽이고 다 쫓아내라는 말인가?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요셉은 우상 동네 애굽에 들어가서 혼자서 애굽을 완전히 바꿔 버렸지 않은가. 그래서 각인시켜야 하고, 뿌리내려야 하고, 체질되게 해야 한다. 회미해가지고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꿈을 자꾸 꾸는 것이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께 가서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피곤하니까 대강 대답했다. “목사님, 봄이니까 피곤하면 꿈도 꾸고 그럴 수 있습니다. 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몇 번 물었는데도 그랬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시달리다가 나가서 이단이 된 것이다. 그제 천부교를 만든 박태선이다. 그 목사님께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다. 어디를 가도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답을 못 얻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문제는 끝났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이 복음을 굳게 붙잡아라. 목사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혼자서도 살아남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 제자 만들지 마라. 왜 자기만 졸졸 따라다니게 만드는가. 그것은 틀린 것이다.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한다. “혼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 네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느냐.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이겨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마지막 때는 엄청난 영적 전쟁의 때가 올 것이다. 이때 주의 종들이 없어서 있을 수도 있다. 30년 후, 50년 후에 한국에 기독교인이 500만 명밖에 안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무서운 때가 온다는 것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약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서는 교회가 망한다. 장로님들이 그래서 앞장서야 한다. 지교회할 생각을 하고, 헌당할 생각도 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2. 영적 싸움을 지속해야 한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한다. 지속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할 말씀이다.

(1) 많은 사람들이 대충 생각하고 넘어간다. 일반 교회에서도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나 대부분 추상적으로 생각한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한다. 실제 마귀가 활동한다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서,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못 사니까 스스로 싸워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정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치열하게 붙잡고 싸우지 않는 동안에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데, 후대들에게 재앙이 오게 된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 본인이야 어느 정도 믿는다고 하지만, 후대들이 다 속아서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번에 IS 들어간 김군이 폭탄 맞아서 죽었지 않나? 이 아이가 교회 다니던 아이다. 그런데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SNS에서 속이는 소리에 유혹받아서 넘어가버린 것이다. 가서 폭탄 맞고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것은 실제적으로 후대에게 다가오는 재앙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2) 우리가 구약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있다. 그런데 각 지파가 이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심하고 거기 눌러앉은 것이다. 왜 그랬는가?

① 첫째 이유는, 힘이 없어서다. ‘아이고, 이제 전쟁에도 지쳤다, 그만하자, 어떻게 다 죽이겠냐, 적당히 하고 살아야지.’ 그러다가 회석되어 버렸다. 제일 문제가, 혼합이 되는 것이다. 섞이는 것이다. 우리도 속을 수 있다. 나는 언약하고 부족하니까, 나는 훈련 많이 안 받았으니까, 나는 아직 잘 모르니까 못 한다 하는 식으로, 핑계를 계속 대게 된다. 이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면, 결국 이스라엘 각 지파들처럼 똑같이 실패하게 된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② 두 번째 이유는, 완전히 죽이거나 몰아내는 대신에 남겨두면 일을 시킬 수 있지 않나? 중 삼으면 편리하다. 그러니까 안 죽인 것이다. 편의주의, 자기 육신의 잠깐의 이익 때문에 영적 싸움을 놓치면, 결국 이것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만다.

③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언약을 100% 붙잡고 자신과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놓쳐 버렸다. 너무 느슨하게 한 것이다. 정말 해야 할 것은 대충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열심히 하니 그렇게 된다. 반드시 몰아내라는 말을 대충 들었다. ‘그냥 하신 말씀이겠지. 어느 정도 몰아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렸다. 여러분, 말씀을 대강 듣고 복음을 대충 생각하면, 결국 후대에게 문제가 오게 되어 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다.

(3)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억해야 한다. 많은 응답을 받았더라도, 그 후에 해야 할 것을 놓치면, 또다시 거기로 돌아간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응답을 받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본 언약을 날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미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계속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새벽기도 해야 하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해야 하고, 주일날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 여러분, 감정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즐기던 것 속에 우상이 스며드는데, 이것을 모르다가 틈을 주게 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노래 속에 이것이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램뉘트들도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응답을 받아야 한다. 무조건 하지 마라 하면 율법이다. “너 메시지 들었잖아? 게임 그만 하고 공부해!” 그것도 다락방 율법이다.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보고, 시간표를 보면서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제대로 하겠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해야 하겠구나 생각이 나도록 하면 하게 되어 있다. TV 볼 수 있다. 인터넷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다. 다만,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해야 한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면서 해야 한다. 빠져 버리면 안 된다. 거기에서 나오는 힘들다.

결론을 말씀드린다.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이번 주간 자기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열쇠가 무엇인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을 해 보시기 바란다. 오늘 성찬식을 한다. 말씀을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완전한 예배의 시간이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한 달을 살아야 되겠다.

(1) 내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현장이 어디인지를, 기도하면서 보시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어디인가. 생활 속에도 있고 이웃 속에도 있고 사는 곳에도 있고 공부 속에도 있다. 내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어디일까. 우리가 캠프를 무사히 마쳤는데, 이 흐름을 우리 성도 전부가 타야 한다. 특히 중직자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 자기 현장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란다.

(2) 근본 언약이 회미해지면 반드시 나와 후대에게 문제가 온다. 내가 제대로 언약을 붙잡은 것이 맞는지, 내가 정말 언약을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한다. 못 잡았는데 잡은 척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받아서 내 것이 되었고 체험했고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 언약을 제대로 점검하는 제일 좋은 시간이 훈련받는 시간이다. 이번 집중합숙훈련 신청이 오늘로 마감된다.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셔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정리하시기 바란다. 전부 참여하시기 바란다. 무엇을 아는가. 무엇이 되는가. 다시 모여서, 다른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하며, 되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훈련 외에는 무장할 기회가 없다. 훈련 안 받으면 전쟁터 나가서 총반이가 될 뿐이다. 훈련받은 자는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법이다.

(3) 내가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틈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빨리 꺾도록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란다. 내 속에 아직 남아 있는 불신앙의 요소를 꺾어 버리시기를 축원한다. 여러분이 그것을 꺾어 버리지 않으면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된다. 아무 것도 해결이 안 된다. 우상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윤리 도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흑암 세력, 원수의 세력을 꺾자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 받으시기 바란다. 복음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는 한 주간, 한 달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정말 영적 싸움을 하도록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